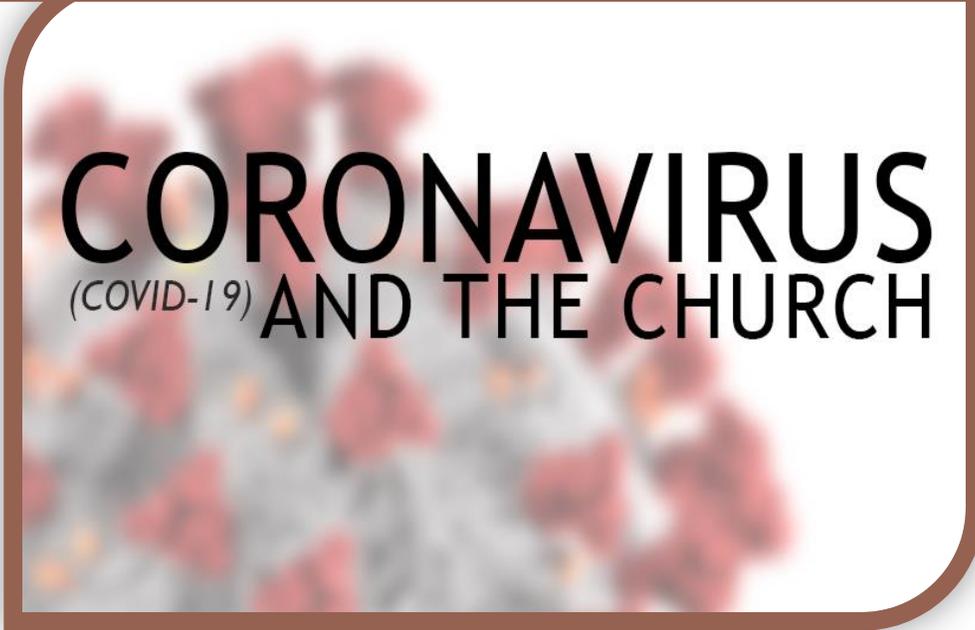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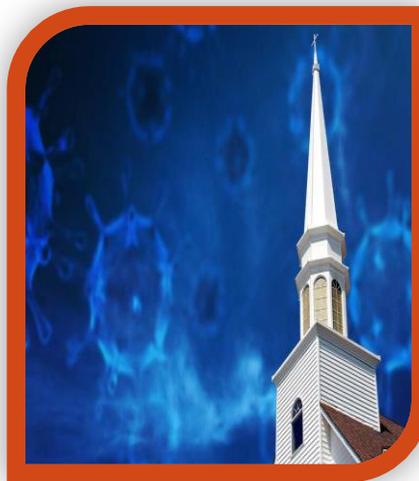
코로나 19와 교회



CORONAVIRUS
(COVID-19) AND THE CHURCH

퀸즈장로교회 기획위원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사람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생활 방역 수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며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실제 바이러스 감염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 가져다 준 ‘불확실성’이다. 불완전한 정보나 미지의 정보를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다수 학자는 최근의 시대 구분을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할 만큼 전 세계가 코로나 전후로 급변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 시대에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구성원에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150여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52일만에 재건했던 느헤미야, 그는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준비 작업을 거쳤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리더라도 철저한 계획과 사전 조사가 없었다면 성벽 재건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무너졌던 성벽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이 무너졌는지 철저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후 함께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바로 세우는 재건 작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 코로나 19의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새롭고 기대 가득한 미래로 나아감으로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많은 기사와 논설을 수집하고 발췌, 정리한 이 보고서가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교회에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19일
퀸즈장로교회 기획위원회

Contents

신학적 성찰

코로나 19 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2
코로나 19 와 주일예배	4
코로나 19 와 환경	7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 모임

온라인 예배의 순기능	10
온라인 예배의 역기능	12
온라인 소그룹의 실제 - Zoom 사용법	14

교회 재개방시 안전 수칙

단계별 접근 방안	17
한국 교회 사례	23

코로나 19 이후의 과제

코로나 이후 분야별 전망	27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3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역할	32
코로나 사태를 통해 느낀 점 & 제안	33

코로나 19 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많은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때, 교회 역사에서 전염병이 확산되었던 비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던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

서기 165~180 년 사이에 일어난 전염병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초래했다. 10년 이상 동안 로마 제국의 인구는 2천5백만명 감소하였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교회는 거의 50만 명이 성장했다.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동안 교회가 왜 성장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기독교인들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있었다.



3세기 로마 제국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Eusebius, 260-340)는 서기 263년에 있었던 전염병의 확산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와 같은 친절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굳게 붙잡고 격려하며, 병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다녔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지속적으로 사역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감수하고, 전염병에 걸린 이웃을 도우면서 기꺼이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죽었다. 환자들을 돌보며 많은 사람을 격려했던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13세기 후, 유럽의 페스트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간에도 다르지 않았다.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 마틴 루터는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다음과 같이 교회를 격려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먼저 소독을 하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약을 투여하고, 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나 자신이 전염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 없는 장소를 가지 않고, 사람들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나를 찾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대로 행동하였다면 나는 내 자신의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어떤 장소와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않고 갈 것입니다."

코로나 19,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교회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쉬지 않고 수행함에 따라 천국은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뀌지 않았다. (행 1:8).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21억의 인구가 복음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이 숫자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269개의 서로 다른 민족은 아직도 선교사를 접촉한 적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과잉 반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한다면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은 더딜 것이다. 위기의 시기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려야 할 사명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모든 종족, 민족, 언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보기 위해(계 5:9), 하나님과 그분의 사명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 예배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 준다.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에 대응하는 주된 방법은 환자의 격리였다. 예를 들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레 13:2-5) 이처럼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고 관찰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격리된 이들이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치유하셨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나병 환자들을 만져 깨끗하게 하신 후 공동체로 돌려보내시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은 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칭찬하셨다. 뿐만 아니라 병든 친구를 위해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모임에 들어온 것을 보시고 행동으로 표현된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 예수님은 이처럼 몸의 질병보다 사회적 격리를 더 안타까워하셨다. 병이 낫는 것을 넘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계의 귀중함을 다시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죽어가는데 아직 내가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위생 규칙을 잘 지켜도 감염되어 죽는 사람이 있다. 게다가 다른 이들을 치료하고 구하려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코로나 19로 죽지 않아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러나 누구라도 고독하게 죽어서는 안된다. 예수님은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어떤 것, 예를 들면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다(마 10:28).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르아트 아도나이)를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코로나 19 때문에 격리된 이들이 외롭지 않게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교회가 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 인류가 두려움에 떨고 고독에 잠겨 있는 이 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 관계 속에 서로를 돌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이들을 다시금 예배로 초청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 19를 만난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 이 글의 일부는 <https://ephesiology.com/blog-post/coronavirus-and-history/> 를 참조한 것입니다.

코로나 19 와 주일예배

코로나 19 확진자를 통해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대다수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인터넷과 가정예배로 대체하였고 한국에서도 각 교단 총회차원의 대응 지침과 성명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일 예배와 관련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이번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교회와 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

1. 공적 예배의 중요성

주일예배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크게 3 가지이다. 그것은 주일예배가 공적 예배라는 점과 공동 회집 그리고 장소성에 있다. 안식일로서의 주일은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이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날이다(출 20:8). 주일은 주중 하루의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히 지키는 날이다. 이것은 적절한 정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자연의 법칙과도 모순되지 않는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 장 7 항). 개혁교회들과 청교도들은 주일성수를 강조해 왔다. 또한 주일예배는 공동 회집의 예배이다(예배지침 2 장 4 조). 주일예배는 사적 예배나 개인 예배가 아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는 공적 집회의 예배이다. 다음은 장소의 문제이다. 공동회집 예배는 반드시 장소가 관계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장소에 따라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신약의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이기 때문이다(요 4:24).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적 예배의 모임을 명하신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 장 6 항).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안식의 날인 주일에 제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께 공적으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명하십니다"라고 답한다(103 문답).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신 4:10).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 18:20), 즉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폐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한다(히 10:25). 신앙고백서도 신자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지만,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 장 6 항). 성도는 질병 혹은 감염의 이유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하며 혹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타깝게 생각 해야 한다.

2. 불가피한 상황과 부득이한 일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듯이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된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있었던 중세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당으로 몰려들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종교개혁가들도 주일성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목회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아있는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였지만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 피신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성도들을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은 성경에도 근거한 것이다. 레위기 11-15 장의 정결법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히브리서 10:19-22 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믿음과 회개를 통해 성도들이 제의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몸과 마음을 얻게 됨으로 근본적으로 성취되었다. 하지만 레위기 15:31, 민수기 5:2-3, 19:20 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 제정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의 말씀들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이나 예배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것은 본래 공예배의 원리와 목적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가 될 수 있다. 소요리문답은 "안식일을 ...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킬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예외로 합니다"라고 쓰고 있다(60 문답). 대요리문답도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일을 제외하고"(117 문 답)라고 했다. 부득이한 일은 피할 수 없는 일, 다른 날로 연기할 수 없는 일, 집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했거나 강도가 들었다면 그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 등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과연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일인가? 일반적으로 확실히 작금의 상황은 비상적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적이고 심각한 상황조차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모든 지역의 상황이 동일하게 일반적이지 않고, 모든 교회의 상황이 동일하게 일반적이지 않다. 따라서 그 대처와 조치 역시 각각 달라야 한다.

3. 당회의 직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주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공예배 외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시행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배들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당회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정치 121 조 2 항은 교회의 제반 예배를 주관하는 것을 당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예배 외의 특별한 형태의 예배들은 편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 질서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당회는 바르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당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4.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예배는 다시금 부흥될 것이다.

전염병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한 전염의 위험 때문에 예배 처소에 모이지 않은 성도를 성급하게 불신앙으로 정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마 4:6). 역병의 유행은 종말의 징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예방 물품들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성경은 신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렘 29:7). 세상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의무이다(딤후 2: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4). 세상의 평안을 위해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시민으로서 협력해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평안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할 기회를 얻고(렘 29:7, 딤후 2:2),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복음 전도가 더욱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하나님 백성의 죄로 말미암음이고, 재앙으로부터 회복되는 길도 하나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길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들을 망각하고 스스로 높아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재앙이 임한 것은 아닌지(행 12:23)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며,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킨 종교적 위선과 세속적 욕망으로부터(막 8:15) 속히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로 받아야 한다. 코로나 19의 대재앙 앞에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욥 2:12~14)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때 교회와 예배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 이 글의 일부는 고려신학대학원(Korea Theological Seminary) 교수회에서 작성한 글을 참조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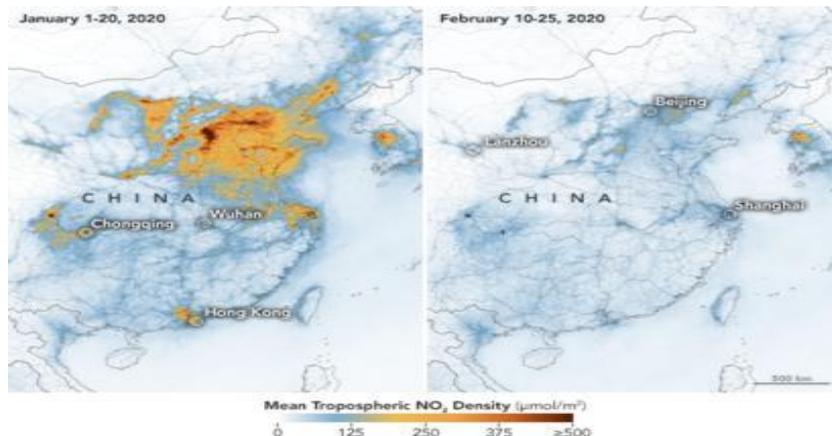
코로나 19 와 환경

2020년 4월 30일 기준, 212개국에서 하루 8만 명의 코로나 19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매일 만 명이 죽어가며, 전체 확진자는 321만 명, 누적 사망자는 23만 명이나 된다. 온 세계가 멈추어 섰다.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없고, 가고 싶은 대로 다닐 수도 없고, 맘 놓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얼어붙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 상황은 앞으로도 2년은 더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아직도 인류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두렵고 답답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역설

일상이 멈춘 자리에는 두려움과 답답함, 아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이 멈추니 자연이 되살아났다. 2007년 지구 온도 상승이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임을 밝힌 후, 2015년에 전 세계가 합의한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니 덩달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배출량은 1/4로 줄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자동차도 비행기도 운항이 줄면서, 공업 지역을 뒤덮고 있던 유해 가스 구름이 걷혀 하늘이 맑아졌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관광객이 감소해 수상 택시 곤돌라의 운행이 줄면서 강물이 맑아졌다. 인도의 하늘이 맑아져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드러났다. 인적이 끊긴 해변에는 멸종 위기 종인 바다거북들이 산란을 위해 수천 마리나 찾아들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7년에 한 해, 50년에 한 번은 사람도 땅(자연)도 쉬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강제로 쉬게 하셨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2020년은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의 멈춤이 지구에게 쉼을 가져다준 '지구 안식년'으로 기억될 것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코로나 19 이후 경기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후 온실가스 배출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증가할지도 모른다. 강제적 쉼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코로나 19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공기, 같은 물을 마시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게 된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야기한 기후 변화가 지구 평균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심히 흘려들던 이들도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전염병으로 겪게 될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긴급히 내려진 조치에 잘 따랐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19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지구를 보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적절한 삶의 양식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과 창조물 모두의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길 기대해 본다.



2020년 1월(좌)과 2월(우)을 비교한 중국 위성사진. (출처: NASA)

인류의 전염병과 지구의 건강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에 코로나 19에 대해 전 지구적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 홍콩독감(1968년)과 신종인플루엔자(2009년)에 이어 세 번째 선언이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새로운 질병이 아니다.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종의 벽을 넘어 인간을 위협하는 데에는 분명한 원인 제공자가 있다. 대개 박쥐를 주목하지만, 아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인수 공통 감염병 대부분이 그렇듯, 인간이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해 동물들과 그들이 사는 세상을 건드림으로써 전파된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이다.

여기에 또한 기후 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상 기후가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살 공간을 잃은 야생 동물이 인간 거주지나 목축지로 이동하여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80년간 유행한 전염병의 70%가 야생 동물에 의하여 생긴 것들이라고 한다.1) 에이즈는 유인원, 조류인플루엔자는 새, 신종 플루는 돼지,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왔다. 관련하여 인간에 의한 숲의 파괴도 바이러스의 전파를 부추기고 있다. 숲 안에는 인간이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바이러스가 있다. 늘 숲에 살던 야생 동물에게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인간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에볼라, 에이즈, 사스, 뎅기, 지카 바이러스가 그 예다. 또한,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한 지구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면, 지구의 회복력이 상실되고 빙하가 다 녹게 되어 고대의 바이러스까지도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미뤄둔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바로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고 돌보는 길이다.

그런데 당면한 코로나 19와 달리 기후 위기는 아직도 미래의 일로 여겨지는 듯하다. 이미 수억의 사람들이 기후 위기로 응급 상황을 맞았는데도,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긴급한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를 회복 가능한 상태로 지킬 시간은 겨우 8~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치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2) 이 계획을 시급히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이 지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한편, 인간이 원인이 된 동물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로 대규모의 생물 종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생물 종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3) 서식지 침해나 기후 변동으로 종들이 서식지를 이동하면서 면역력이 없는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인류에게 일어나는 코로나 19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중국은 야생 동물에 대해 몇 가지 조치를 하게 되었다. 불법 야생 동물 밀매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이나 가금류로 간주되지 않는 야생 동물 거래만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야생 동물을 먹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공간인 아직 남아 있는 야생의 공간 숲을 보전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와 다른 생물 종들이 계속 코로나 19보다 더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19를 통해 지구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와 같은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의 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두려움 안에서 위기를 마주하고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가능하고, 필요만큼 누리며 모두가 골고루 누리게 해야겠다는 ‘자기 선언’이 가능하다.

코로나 19와 일회용 쓰레기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 멈춤으로 지구가 되살아난 반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용기, 비닐봉지와 포장재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다. 생활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폐기물 배출량이 명절 때 배출하는

양보다도 많다고 한다. 수량도 수량이지만 그동안 애써서 이루어 왔던 분리배출 습관이 흐트러지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가 되면서, 일회용 컵을 수년 안에 퇴출하기로 했던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였고, 그러자 식품 업소와 커피 전문점은 물론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배달 음식 및 택배로 인한 포장 쓰레기도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벅했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더구나 요즘 배출되고 있는 일회용품은 사용 후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원자재 값이 떨어져 폐지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선별해 이익을 얻는 재활용 업체들의 수익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 처리할 양을 줄이려면 사용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 코로나 19의 치유자

반복될 수 있다고는 하나, 코로나 19는 결국 지나갈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복귀할 것인가? 지구를 해치면서까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일삼는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구상에서 다른 창조물들과 함께 숨 쉬며 번영하기를 추구하는 변화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마 5:4)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 보자. 우리가 입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지구의 안녕’을 물어 보자. 우리뿐 아니라 지구 이웃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19가 지나가도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상처는 아물지 몰라도, 그 고통과 상처가 지구와 지구 생명들을 치유하는 원천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구가 보내는 신호에 둔감한 채 마냥 달렸으니, 이제 멈추어 삶을 성찰해 보자. 혼자 그런 성찰을 하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몇 사람이 모여 함께 ‘지구의 안녕’을 묻는 ‘지구 돌봄 캠페인’을 시작해 보자. 지구가 아프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돌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으로 함께 묻는다면, 두려움과 불안함, 막연함에서 벗어나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자이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에 상처 입고 무서워 떨었던 고통의 기억을 나누며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코로나 19 이후의 삶을 살아낼 용기와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구의 지속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 우리 안에 두려움을 사랑으로 걷어 내고 부추겨진 욕망도 씻어 낼 수 있는 길. 그 길은 코로나 19의 상처를 안고, 기후 변화와 종의 멸종이라는 위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고 행동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다.

(참조)

- 1) 그린피스,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2020. 2. 25.)
- 2) <https://news.joins.com/article/23028237>
- 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295366/>



온라인 예배의 순기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되면서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가속화 되었다. 회사 업무 회의, 학교 수업, 인간 관계도 모두 온라인 동영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화상 채팅 서비스 '줌(zoom)'이 이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줌(Zoom)은 더 이상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를 "зум 세대"(Zoomer, 줌을 쓰는 세대)라고 부른다. 이런 상황에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 19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당(오프라인)에 가지 못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 가정(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다. 미국 예일대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인 테레사 베르거(Teresa Berger)는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사태를 마치 예견한 것처럼 적절한 때에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는 책을 내놓았다. 테레사 박사는 디지털 세상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디지털 사역에 대한 5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1. 사역의 레퍼토리 확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특징은 예배, 소그룹 사역의 레퍼토리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에서 응용 프로그램 화면과 웹 내용을 표시하는 기술과 같은 기술 혁신 때문에 엄청난 거리를 가로질러 즉각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증강 현실(AR)'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통합'됨으로써, 사역의 '레퍼토리'가 지금보다 더 방대하게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건의 훈련인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리 멀리 않은 미래에 오프라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의 이미지들을 혼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포켓몬고와 같은 AR 게임이 디지털로 매개되는 작은 포켓몬 괴물을 찾아 동네를 헤매게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디지털 시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예배의 강화된 레퍼토리 앞에서 향수병에 빠지기보다는 예배 자체의 매우 오래된 선택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논리를 디지털 문화와의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이다.

2. 연속성과 혁신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은 지나간 이전 것들과의 근본적 단절보다는 항상 변화하는 문화적 컨텍스트 안에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요하게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이라고 통상 간주하는 다매체성(multi-mediality), 쌍방향성(interactivity), 텍스트 콜라보(textual collaboration) 등은 디지털 이전 시대 미디어를 형성할 때도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다.

디지털 미디어가 종교적 행위들을 단순히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한 문화적 추세들을 비추어 주고 있으며 온라인 사역은 예배 생활의 일부에서 분명 변화시키고 있다. 바로 집 밖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드리고, 줌(Zoom)을 이용해서 소그룹의 나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난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와 그 이전 예배 사이의 차이점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3. 지역과 상관없는 거룩한 공간과 멀티 사이트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과 관련된 세 번째의 핵심 특징에는 공간에 대한 변화하는 경험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공간들이 나타났다. 이 공간은 훨씬 복잡하고 융합적인 것이다. 선택에 따라 가족들을 위한 장소, 혹은 작업장, 비형식적인 공적 모임을 위한 제 3의 장소, 혹은 새로운 멀티 사이트 현실 등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과 상관없는 거룩한 장소들의 출현과 오프라인 예배당으로부터 예배의 떠남은 직접 함께 참석하는 것보다 예배와 동시성이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디지털로 매개되는 예배에서는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는 것”보다,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결정적인 특징이 되어가고 있다.

4. 단선적(linear) 예배를 넘어서

네 번째로 “단선적(linear)” 사역들로부터 보다 “리조매틱”(rhizomatic: 마인드맵처럼 뿌리를 뺏어나가는 현상)하고, 초텍스트적인 경험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다.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소리, 비디오, 혹은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스크린에 나타나는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이 즉각적이며 쌍방향적으로 깊이 몰입하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5. 휴대와 이동 가능, 접근이 열려 있는 예배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의 마지막 특징은 넓어지고 광범위해진 “열린 접근”이다. 스마트폰의 출현 이후 예배와 기도, 찬송은 새롭고 분명한 방식으로 휴대와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세계들 안에서 휴대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예배, 전(全) 지구적인 기도와 찬송들이 전(全) 세계적으로 번성하여 펼쳐져 나가게 되었다.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의 다섯 가지 핵심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온라인 공간이 교회 사역을 위해 유례없이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온라인 공간이 기도와 예배, 소그룹 사역을 위한 유례없이 부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 오프라인 예배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화상 사이를 움직여 다니시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열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깊은 고민과 성찰에서 나온 테레사 박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예배의 역기능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 내의 가장 큰 이슈는 온라인 예배일 것이다. 그동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온라인 예배는 다양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공중예배의 대체재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서둘러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협조하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지 세 달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내에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독일보 4.4 일자 참조>

첫째는 가나안 성도의 증가이다.

가나안 성도는 여러 이유로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여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여전히 신앙은 유지하고 있는 교인들을 일컫는 말로 교회에 ‘안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하여 가나안 성도 혹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른다. 가나안 성도는 이미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계의 큰 고민거리였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됨으로 교회 소속감이 희박해지게 되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교인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교회는 성도들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성도들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는 설교 서핑족의 증가이다.

한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순례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교회 순례족)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예배 참여시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서 제공하는 방송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설교들을 찾아서 듣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나안성도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습관화 될 경우 설교 서핑족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셋째는 유명한 목사의 설교 선호와 말씀의 편중 현상으로 인한 성도의 신앙 저하이다.

온라인에서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싶은 욕구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결국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찾아 듣게 되며, 일반 대중들을 위한 온라인 설교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에 편중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설교 시청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만 듣게 된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정상적인 양육 시스템에 의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 다양한 신앙적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말씀만을 편식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신앙 지식은 편중되고 저하되며, 믿음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설교는 개방되어 있고 자료가 남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 때로는 성도들에게 견책의 기별을 전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며, 설교의 한 부분을 문제 삼아 온라인상으로 비난하면 목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넷째는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이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면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게 된다. 실제 사례들에서 보면 온라인 예배 시 처음에는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릴 때와 같이 드렸는데 점차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예배 순서를 모두 생략하고 설교만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예배자라기 보다는 시청자, 구경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예배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이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더욱 흥미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교회 문화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예배의 고착화는 온라인 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발전과 소득향상에 따라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이 증가함으로 주말을 여가로 활용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주말을 이용한 여행자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도피처, 혹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대체할 임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상황이 나아지면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야 한다.

이 외에도 여러 현상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지금까지 열거한 정도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현재 교회 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예배의 한 방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더 중요성과 필요성은 크게 대두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보완책을 수립하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온라인 소그룹의 실제: Zoom 사용법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offline)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도 여전히 공예배 현장을 온전히 복원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소그룹의 부재를 극복하고자 온라인 소그룹을 진행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 소그룹을 실제로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Zoom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온라인 소그룹 시작 전: Check List>

먼저,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1. 소그룹 구성원이 온라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가?

온라인 소그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소그룹 구성원이 있다면, 함께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이웃 중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신호가 양호한 환경이어야 한다. 만약 Wi-fi 신호가 약하거나 스마트폰 데이터 속도가 느린 환경이라면 제대로 소그룹을 진행할 수 없다. 가급적 Wi-fi 사용이 용이한 곳에서 참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만약 PC 사용이 가능하다면, 보다 원활한 소그룹 진행을 위해 스마트폰 보다 PC를 사용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좋다.

2. 소그룹 구성원 모두가 온라인 소그룹 참여 방법을 이해하는가?

온라인 소그룹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앱(Zoom, Skype, Teams)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그룹 리더가 온라인 모임을 위해 사용할 프로그램(앱)을 선정하고,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 구성원 모두가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온라인 소그룹 예행 연습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가?

온라인 소그룹이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온전히 진행되려면, 소그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에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이는 것이 가능한지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온라인 소그룹 환경에 익숙한 사람은 많지 않다. 각 구성원별로 사전 교육을 한 후에 반드시 예행 연습을 하여, 실제로 온라인 소그룹을 진행할 때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온라인 소그룹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는가?

온라인 소그룹이 시작되기 전에 구성원들이 소그룹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주위가 조용한 장소를 물색하게 한다. 특히 카페나 야외에서 접속하지 않도록, 가급적 실내 조용한 곳에서 접속하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 중간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아이의 울음소리, 전화, 문자메세지, 벨소리, 반려동물의 난입 등)를 가급적 원천 차단하게 해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제된 공간에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릴 필요가 있다.

<온라인 소그룹 시작: Zoom에서 회의 개설>

모든 구성원들이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소그룹 리더가 온라인 소그룹 환경을 조성한다. Zoom은 '회의'를 개설하는 소그룹 리더만 Zoom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구성원들은 스마트폰이나 PC 환경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폰에서는 최대 4명의 얼굴이 동시에 비춰지며, PC에서는 모든 참여자의 얼굴을 동시에 볼 수 있다.

* 무료 계정은 최대 40분까지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한 번에 최대 24시간까지 소그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료 계정(Pro 계정)으로 가입해야 한다.

1. 소그룹 리더: Zoom 가입 및 설치

소그룹 리더는 먼저 www.zoom.us에서 자신의 계정을 생성한다. 그리고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Window/Mac)에 Zoom 프로그램 클라이언트를 설치한다.

2. 소그룹 리더: Zoom 회의 개설

소그룹 리더는 Zoom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로그인한다. 그리고 ‘새 회의’를 눌러 모임을 시작한다. 하단 메뉴에서 ‘초대’를 누른 뒤, 추가로 뜬 메뉴에서 ‘URL복사’를 눌러 초대링크의 주소를 복사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로 소그룹 구성원에게 보낸다. 소그룹 구성원들은 스마트폰이나 PC에 Zoom이 깔려있다면, 링크를 눌러 손쉽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3. 소그룹 리더: Zoom 회의 보안

Zoom은 보안에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부에서 불청객이 들어오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새 회의’ 버튼 아래 화살표를 눌러 개인 회의번호를 누르면, ‘PMI 설정’ 메뉴가 보인다. 여기에서 회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소그룹 구성원들은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온라인 소그룹 진행: Tips>

이제 실제로 Zoom을 사용해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한다. 소그룹 리더가 중심이 되어 소그룹을 이어나갈 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소개한다.

1. 통성기도

온라인 환경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소리가 겹쳐서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만약 통성기도를 진행한다면, 가능하면 각자가 자신의 기도 소리를 작게 내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각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볼륨을 낮추게 하는 것도 좋다. 구성원들이 기도 인도자의 목소리에 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통성기도의 은혜가 배가된다.

2. 찬양

데이터 송수신 속도에 따라 각각의 목소리에 시간차가 생긴다. 따라서 동시에 같이 찬양을 시작하면 돌림노래처럼 소리가 들러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환경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에는 가급적 소그룹 구성원들이 이어폰 한 쪽을 빼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의 볼륨을 낮춰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덜 듣게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만 들리도록 찬양 인도자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들의 마이크를 음소거 하는 것도 좋다.

3. 소그룹 내 조별모임

Zoom에는 ‘소회의실’ 기능이 있다. 모든 구성원들을 리더가 원하는 숫자만큼 연 ‘소회의실’에 나눠 넣고 한시적으로 조별모임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리더는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Zoom 홈페이지(www.zoom.us)에서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설정’ 아래 ‘회의 중(고급)’ 옵션에서 ‘소회의실’을 활성화 해주면 된다. 이후 다시 Zoom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하단 메뉴에 ‘소회의실’이 추가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소회의실’을 클릭하고 열고자 하는 조별모임의 숫자를 기입하고 나면, 각 ‘소회의실’에 들어갈 사람을 지정하거나 무작위로 배정할 수 있다. 배정을 마치고 ‘소회의실’을 열면 각 구성원에게 ‘소회의실’에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별로 개별 공간에서 모임을 이어나갈 수 있다. 리더가 원하는 시간에 ‘소회의실’ 종료 버튼을 누르면 60초 타이머가 시작되고, 타이머가 종료되면 강제로 모든 구성원들이 한번에 다시 모이게 된다.

4. 화면 공유(영상자료, 악보 등)와 소리 공유(영상소리, 배경음악 등)

Zoom은 화상회의 및 강의에 특화되어 있어 PC의 화면을 아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리더가 화면 하단 메뉴에서 ‘화면 공유’를 클릭하면, 현재 리더의 PC에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공유하고 싶은 화면을 선택하게 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Welcome”의 의미를 담은 화면을 띄워놓을 수도 있다. PPT나 이미지로 환영하는 문구를 담은 화면을 띄워 놓고 잔잔한 배경음악을 재생하고 있으면,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마음을 한결 더 편하게 열고, 조금 더 풍성한 나눔이 가능한 소그룹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화면을 공유할 때 왼쪽 하단의 ‘컴퓨터 소리 공유’를 클릭한 뒤 화면을 공유하면, 화면뿐만 아니라 PC에서 나는 모든 소리(예: Youtube 영상으로 틀어 놓은 반주 음악 등)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또, PC에서 나는 소리만 공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화면 공유’ 상단의 탭에서 ‘고급’으로 들어가 ‘컴퓨터 소리만’을 선택하면 된다.

5. 온라인 에티켓

소그룹 구성원들이 온라인 소그룹 환경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에티켓을 지키게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신호가 약해 잠시 끊어졌을 경우에 곧바로 모임에 다시 참석하도록 애쓰게 한다. 또, 가급적 소그룹 중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급한 불일을 위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게 한다.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로 약속한다. 이렇게 소그룹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에티켓을 정리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사전에 동의하고 약속한 상태로 소그룹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Zoom이 아니더라도, 각 교회와 소그룹에 맞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에서 이어나갈 때, 사역의 누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그룹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새로이 구축된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풍성한 소그룹 나눔이 가능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를 안전하게 재개방할 단계별 접근 방안

사역을 재개할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결정

수 주간의 재택 명령이 내려진 후 실업률이 늘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염병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검사, 접촉 추적 및 검역 능력이 부족하다고 경고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제한을 완화하고 모든 사업체를 재개하도록 서서히 허용하고 있다. 많은 주 정부가 협동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 및 주 차원의 정부 지도자들이 혼란을 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선거로 인해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정치화되고 있다. 여러 의견이 들려오는 가운데 교회는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 결정을 위한 이정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 두 개의 이정표, 즉 성경적 진리와 과학적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대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고 말한다. 나 자신을 아낀다면 이 유행병 기간 동안 감염되지 않도록 각자 조심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한 사랑도 타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중점을 두더라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영적, 정서적, 사회적 요구가 있다. 이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교회가 이러한 요구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예배, 기도, 격려, 말씀 증거, 제자훈련, 봉사를 하면서 부르심을 따랐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19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에 대한 최신 과학 지식

전 세계적으로 최선을 다해 현재 코로나 19를 연구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 지식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 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많은 국가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있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교회와 관련하여 사역을 재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초기에는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코로나 19가 전염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이것은 왜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고 은밀하게 전염되는지를 설명하고 전염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감염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될 때 전염이 확산된다:

코로나 19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염성

- 호흡기 비말을 주변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행위
- 감염된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경우(6 피트 이내)
- 외부 환기가 제한된 밀폐된 환경
- 감염된 사람과 보내는 일정한 시간
- 다수의 사람이 모인 모임의 유형 (예. 세대 간 혼합)

이러한 요소가 많을수록 전염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면 전염 위험이 줄어든다. (표 1)

둘째, 코로나 19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사망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코로나 19의 위험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노인들에게 중점을 두었다. 그런 다음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일반적인 만성 질환을 가진 젊은 성인들도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에서 코로나 19로 입원한 사람 중 60%가 65세 미만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5%가 심각한 코로나 19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셋째, 우리는 어떤 통제 수단이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실험 사례, 연락처 추적 및 격리를 통해 중대한 제재 없이 코로나 19 전염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이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해냈다. 증상이 시작된 후 2-3일 이내에 코로나 19 환자를 검사하고 대부분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한국과 대만이 신속하게 연락처를 찾고 격리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 기능과 함께 잘 만들어진 연락처 추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사람이 기침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호흡기 비밀이 주변 공기로 방출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마스크 사용의 주요 이점은 감염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부터 코로나 19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다. 감염될 확률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된 사람이 코를 문지르며 접촉한 표면에 바이러스가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전문가들은 코로나 19가 지역 사회의 감염 정도만 다를 뿐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코로나 19 사례가 여전히 높거나 이제 막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여러 주에서는 뒤늦게 재택 명령을 시작했다. 따라서 전파는 계속되고 새로운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광범위한 검사와 효과적인 접촉 추적 및 격리를 통해 증가율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검사와 훈련된 직원, 효과적인 추적과 격리가 미국의 모든 지역에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 완벽하게 통제 불가능한 전염병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전염병 사례를 크게 줄인 지역도 주변 지역에서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최신 과학 지식을 적용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장 사역을 재개하는 결정을 고려할 때, 우리는 먼저 교회가 코로나 19 전파의 위험이 높은 환경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회 활동에는 공기 중에서 코로나 19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으며(표 1), 따라서 성도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면 사역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교회 활동을 하는 동안 공기 중에서 코로나 19 전파 위험요소 제한 필요
- 지역 사회 내에서 감염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에 맞춰 교회 활동 횟수를 줄이거나 늘릴 것
- 감염된 사람과의 연락처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교회 활동을 재개할 것

<공기중 코로나 19 전파를 일으키는 요인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 표 1

전염 요소	교회 활동 내 전염 위험	위험 감소를 위한 제한
코로나 19 환자의 전염성	무증상 코로나바이러스 보유자가 참석하여 전파할 수 있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 더 전염성이 큼	마스크 착용



전염 요소

교회 활동 내 전염 위험

위험 감소를 위한 제한

호흡기 비말 교환을 증가시키는 활동	깊고 빠른 호흡을 증가시키는 찬양, 웃음, 말하기 (때로는 크게), 기침 및 신체 활동	노래, 대화 또는 불필요한 신체 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근접 거리 (6 피트 이하)	좌석은 일반적으로 6 피트보다 훨씬 가깝고 사람들은 종종 서로 마주함	최소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것. 대면 활동 금지; 한 방향을 향해 줄 맞춰 앉기; 마스크 착용
외부 환기가 제한된 밀폐된 공간	천장이 낮고 외부 환기가 안 되는 소규모 회의실에서 자주 회의	천장이 높은 넓은 방을 사용할 것. 창문과 문을 열어 두고 방을 자주 환기시킬 것; 되도록 야외에서 만날 것; 마스크 착용
접촉 시간	일반적으로 30 분 이상 지속되는 회의가 잦음 (긴밀한 접촉). 더 긴 시간 = 더 큰 위험 동반	필수적이지 않은 활동을 줄임으로써 시간을 최소화할 것. 이동시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출입
모임 증가	세대 간 접촉이 빈번하면 무증상 청소년으로부터 노인으로 전염이 퍼질 수 있음	연령별 모임으로 분리. 같은 사람들끼리만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 위험요소가 감소됨.

사역을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방법

새로운 교회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4 단계 계획을 정했다. 이 단계별 계획에는 지역의 감염 수준에 따라 횟수를 늘리거나 줄이며 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유행성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선교적 부름을 실천하는 것
- 사회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 코로나 19로부터 보호할 것
- 코로나 19를 극복하려는 광범위한 노력 지원

이 계획을 교회에 적용할 때는 각 주의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제한으로 인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계획과 다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비슷한 수준일 때만 동일한 단계의 활동을 구현해야 한다. 이 표(표 2)에는 일반적인 교회 활동들만 포함되어 있다. 이 외 활동을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때는 표 1의 요소와 재개된 활동에 따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교회 활동 재개 후 4 단계 계획〉 표 2

활동	전염 위험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소그룹 모임	보통	10명 이하; 마스크 착용; 고정 인원; 비슷한 연령대 (노인 없음)	15명 이하; 마스크 착용; 고정인원; 연령대 혼합	15명 이하; 마스크미착용; 비슷한 연령대	3 단계와 동일
예배					
규모	상황에 따라 다름		50명 이하; 물리적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100명 이하; 물리적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100명 이상; 물리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찬양	높음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선택사항
인사	보통/ 높음				약수 금지
헌금/성찬	보통		온라인 헌금; 입구 헌금함; 전달 금지	온라인 헌금; 입구 헌금함; 전달 금지	온라인 헌금; 입구 헌금함; 전달 금지
찬양대	높음				
교제					
노년층	높음				20명 이하; 마스크 착용; 강의실 좌석배치
장년	높음			20명 이하; 마스크 착용; 강의실 좌석배치	20명 이상; 마스크 착용; 강의실 좌석배치
청장년	높음			장년과 동일	장년과 동일
청소년/대학 생	높음			소그룹 모임; 마스크 착용; 노인 참석 없음	소그룹 모임 (노인 참석 없음)



활동	전염 위험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중고등학생	높음				소그룹 모임 (노인 참석 없음)

소규모 모임을 통한 선교적 부름 수행

재택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적은 인원의 모임이 가장 먼저 허용된다. 따라서 소그룹 모임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소규모 모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좋은 방법이므로 우리는 이를 할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한다. 소규모 모임에서는 서로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상호 간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모임을 통해 교회 건물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 또한 매주 예배를 위해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예배가 재개되면 모두 함께 참석할 수도 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에 흩어져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사역에서 교회 건물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우리는 지역 사회 안에서 단단한 소규모 모임을 조직하여 주변의 성도들이 궁극적인 교회 사역을 위해 교회로 돌아오도록 돕는 견고하며 동시에 유연한 기초를 쌓을 수 있다. 소규모 모임에서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은 낮은 편이다. 구성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같은 연령대끼리 모임을 함으로써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지역 사회의 감염률이 여전히 높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 추가로 보호할 수 있다. 성도들은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와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서로에게 알릴 수 있고, 모임 내 다른 성도들이 빠른 자가격리를 실행할 수 있다.

사회적, 정서적, 영적 필요 충족

우리에게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만남이 피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감염의 위험을 줄이려면 접촉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항상 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나면 감염될 위험이 줄어든다. 교회 전체에 작은 안전 장치를 만들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한다. 더 많은 성도들이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수록 지역 사회에 감염이 존재하는 동안 모두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 비슷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우리의 사회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에 대한 보호 제공

교회의 사역이 재개될 때 적어도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리적인 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단위로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적 단위이므로 교회에서 개인별로 따로 분리될 필요가 없다. 가족 단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무증상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줄일 수 있다. 마스크 사용자의 비율을 늘리려면 모든 사람이 착용하도록 의무화 하라.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도록 서로 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정에서의 소규모 모임에서는 물리적 거리 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에 감염 수준은 여전히 높다.



코로나 19 를 극복하려는 광범위한 노력 지원

코로나 19 가 가까운 시기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교회 활동을 재개한 후에도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와 친구들과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는 보건(의료) 부서가 감염된 사람들의 접촉을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코로나 감염 환자가 교회에 참석했을 때, 당일 모든 참석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교회는 신속하게 감염 환자에게 통보하여 스스로 격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지킨다면 다른 성도들이 감염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접촉자들의 연락처 파악 및 추적을 진행할 때는 속도가 핵심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참석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이 앉은 자리를 기록할 것 예배실 및 모임에 좌석과 줄 번호(또는 테이블 번호)를 지정
-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기록할 것. 이름, 연락처 및 앉은 자리 기록. 각 세대별 한 사람만 등록하면 되지만 그룹의 인원수를 기록해야 함
- 최소 3 주 동안 기록을 보관할 것
- 모임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 시 연락을 취할 교회 내 담당자를 지정할 것

다음 단계로 갈 시기 결정

이 단계별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교회 활동 횟수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교회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가 있을 것이다. 각 교회는 먼저 소속된 지역 사회의 코로나 19 감염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 감염률이 올라가거나 여전히 높으면 현장 사역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감염률이 떨어지고 낮아진 상태라면 계획의 1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1 단계로 전환하기 전에 최소 3 주 동안 코로나 19 사례와 사망자가 일관되게 하향 추세를 보여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하향 추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감염률 또한 낮아야 한다. 광범위한 검사 없이는 지역 사회의 실제 감염자 수를 알 수 없다. 검사가 증가할 때까지 보고된 사례와 사망자 수를 기반으로 추측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락 추세와 낮은 감염률이 지속되면 현장 사역을 재개하도록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의 과정에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들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는 이유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결론

코로나 19 는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겨우 몇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 현재 시점에서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역을 언제 재개해야 할지 그리고 안전하게 재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다. 이러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경적 진리와 이용 가능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단계별 지침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형태의 코로나 유행병은 지나갈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이 시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선택하신 일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현재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분별력과 동정심,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 CT Article by Daniel P. Chin 의 일부를 발췌, 정리함

재개방된 한국 교회 사례 및 출구 전략

I. 부활절이후 서서히 개방된 한국 교회의 상황

1. 1-2m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 병행 (신청자나 희망자 중심으로 사전예약)
2.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등 주중 예배와 사역들도 서서히 진행
3.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 유지

II.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5/8 에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교회 세부지침

- 교회 내 방역 관리자 지정 및 지역보건소와의 방역 협력체계 구축 확인
- 예배당 주일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 병행하며 주일예배 외 행사와 집회 최소화
- 예배당 내 성도 간격 최소 1m 이상 실천 및 출입시간 분산
- 손소독제 비치,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
- 예배나 집회를 전후하여 소독 및 환기
- 자연환기 가능한 곳은 환기 창문을 열고, 에어컨 사용시에는 매일 2 회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출입구 손잡이나 난간등을 매일 1 회이상 소독
- 개인별 마이크 사용 혹은 마이크 덮개로 구분하여 사용
- 가급적 예배당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작성
- 개인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하기
- 예배당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시 예배당 출입, 방문 중지 사전 고지
- 예배당 내 마스크 착용 안내와 미착용자를 위한 마스크 비치하기
- 단체식사 제공 자제, 단체식사 시 한 방향 보거나 띄워앉기등 간격유지
- 목회자나 교회직원이 교인이나 방문자를 직접 응대할때는 마스크 착용
- 교회 공용차량 내부 수시 소독,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 최근 14 일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예배당 방문 자제 안내

III. 대형교회 사례

1. 순복음교회

- 주일, 새벽, 수요, 금요, 토요 예배가 현장예배로 복귀 (온라인 생중계 유지)
- 12,000 명 교인중 1,200 명이 사전신청해서 현장예배 (5/3)
- 12,000 명 교인중 3,500 명이 현장예배 참석(5/10)
- 정부지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착석
- 교회입구에서 신도들이 1m 거리 유지하면서 입장
- 열감지 카메라로 신도들의 체온을 측정한 후에 개인별 발열검사를 실시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 교회학교, 예배 후 모임 및 기도회 한시적 중지

2. 온누리교회

- 예배당 주일예배 재개(토요주일예배, 일요주일예배 중 ‘예배 참석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 참석, 각 예배당 400 명 정도만 제한적으로 참석허용, 천천히 거리를 두고 한명씩 입장)
- 교회에 도착해서 교인확인 및 체온 측정, 좌석지정(QR 코드 스캔)절차를 거쳐서 본당에 입장,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호흡기 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반드시 온라인 예배로 드림
- 드라이브인 워십 예배 (예약시스템을 통해 주일 1, 2, 3 부에 참석)
- 차세대예배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별도공지가 있을때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림
- 현재로는 방역을 위해 새가족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음
- 온라인 세미나, 양육 프로그램 진행



- 개인영성관리: 생명의 삶 QT, 온라인 새벽예배, 하루 20 분 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기도

3. 사랑의 교회

- ‘감염 예방을 위한 7대 준칙’을 지키며 교회 직분자와 자원하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병행, 한주후에는 현장예배 완벽복원
- 교인증 확인, 손소독제와 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진행
- 교사, 예배안내 및 각 영역의 봉사자, 교역자, 직원들은 섬김을 시작하기전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고 이상이 없을때 섬김
- 거리두기를 위해 12000 명 좌석 예배당에 1200 명 정도만 신청받아 참석, 앞뒤, 좌우 1m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권장, 예배당 입장 전에 손소독제 사용, 성도들과는 악수대신 목례로 인사
- 교회내부 좌석에 스티커부착 “ 여기 앉아주세요”
- 새벽기도회는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로만 진행
- 전문 방역팀이 정기적으로 교회의 모든 시설에 소독과 방역 실시
- 찬양대 (좌석의 표시된 곳에 착석, 한 줄씩 띄워서 각줄에 10 명- 총 30 명정도, 오케스트라도 마스크착용)
- 인터치 전화/온라인 상담 진행(죽음에 대한 공포, 상실, 외로움, 무기력, 불안, 우울을 경험하는 분 대상으로)
-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정오기도회 (air streaming): 나라와 민족의 치유를 위해

4. 소망교회

- 주일예배: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교인출입증 발급과 사전예약신청을 한 교인에 한해)
- 새벽예배: 현장예배(교인출입증 발급 받은 교인에 한해)
- 교회 홈페이지에 교인출입증 발급/ 예배당 출입 사전예약 신청
- 수요일예배: 당분간 온라인으로
- 교육부: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 병행
- 새가족 교육: 잠정적으로 중단
- 2300 명 규모의 예배당 좌석중 340 석만 현장예배 몫으로 예약을 받음

5. 분당 우리교회

- 방역지침을 준수: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필수, 본인의 개인정보 기록, 온라인 교인센터 앱 이용
- 현장예배(사전 신청후 배정받은 성도들만 참여)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
- 새벽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현장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병행
- 주일학교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예배로만 드리며 현장예배는 코로나 19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시작/ 신앙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과 큐티진행
- 중보기도요청: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중보기도부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
- 식당봉사부는 사역하지 않음
- 경조사 및 심방 진행: 장례는 개별적 조문으로만 유가족 위로함/ 결혼은 교구교역자가 참석하여 축하하며 식사는 하지 않음/ 비대면 전화 심방

6. 부산 호산나교회

-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 함께 진행, 새벽예배는 온라인으로만
- 현장예배를 위한 안전수칙 안내 동영상을 교회홈페이지에 업로드: (온라인예배 대상, 마스크 미 착용시 출입 제한, 예배 30 분전 도착)
- 셔틀버스와 식당은 운영하지 않음
- 예배참석에 앞서 코로나대응팀에 협조: 예배 참석 명단 작성(등록교인 확인)QR 코드, 마스크 착용, 기본문진표 작성(미리 홈페이지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열상 카메라 확인, 좌석간 1-2m 이상 거리두기
- 예배당 입장: 스티커로 표시된 좌석에만 착석, 예배시간에 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없이 인사는 목례로
- 고위험군(발열 기침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 만 70 세 이상 성도)는 반드시 온라인예배
- 교육부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

- 성도들에게 식사제공 하지 않고 모임없이 즉시 귀가하기
- 코로나 19 대응위원회 봉사자 모집: 방역, 의료, 보안
- 예배 후 방역 소독 실시하기

7. 연세중앙교회 교회출입 단계별 방역 수칙

- 제 1 단계 교회 모든 예배 온라인 생중계
코로나 19 정부 대응 단계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바로 온라인 예배 시작,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라이브 생중계
- 제 2 단계 교회 자체 코로나 19 대책위원회 운영
코로나 19 정부 대응 단계 심각으로 격상된 직후 조직, 운영, 임명 (대책위원회->각 기관 본부장-> 소속 성도들) 철저한 관리, 신속한 보고 성도들의 건강과 생활 동선을 철저히 관리, 이상 있을 시 바로 자가 격리
- 제 3 단계 교회 자체 자가격리제도 실시
국내에 처음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이후 선제적 자가 격리 권고 시행 조건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30 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교회에 오지 않도록 조치
고위험군에 속한 기저질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65 세 이상인 자, 영유아 및 취약아동, 청소년, 임산부, 암 환자, 장애인 등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온라인 예배
(자가격리 13 가지 유형)
 1. 최근 60 일 이내 해외 방문
 2. 최근 40 일 이내 해외방문자 접촉
 3. 최근 한 달내 확진자 직접 접촉
 4. 최근 한 달내 확진자와 동일한 동선, 장소 방문
 5. 최근 한 달내 원거리 타주 방문
 6. 최근 14 일내 장례식장, 결혼식장 방문
 7. 대면 직종 근무자
 8. 확진자 발생으로 직장 및 상주 건물이 폐쇄한 경우
 9. 확진자를 만난 사람과 접촉한 경우 (2 차 접촉자)
 10. 감기몸살 및 코로나 19 와 유사증상
 11.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와 동거인인 경우
 12. 고위험군
 13. 기타 이상 증상자
- 제 4 단계 성도 입실 전 성전 방역, 공조기 살균 소독
예배 전 성전 및 교회 건물 방역과 소독에 전력
공조시설 철저히 방역, 살균된 청정 공기를 교회 건물과 성전에 공급
- 제 5 단계 차량 방역
성전 부지 입구에 설치된 차량소독기 의무적 통과 → 거부 시 차량출입 제한
운전자의 성도확인용 바코드 소지 여부 확인 → 바코드를 소지않은 차량은 즉시 회차 조치
- 제 6 단계 사회적 거리 2M 유지
사회적 거리(안전거리) 2m 성도들의 경각심 고취, 위반 시 교회 출입 불가, 출입 후 위반에도 퇴실 조치
- 제 7 단계 음식물 반입 금지 확인
교회 내 음식 반입 및 섭취 금지, 교회 내 식당 및 휴게실 폐쇄, 식사 모임 금지, 음수대 사용 전면 금지
- 제 8 단계 마스크 착용 확인
코와 입을 완벽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 미착용 하거나 규칙에 준하지 않게 착용한 경우 입장 불가
출입 이후에도 미착용자는 즉각 퇴실 조치
- 제 9 단계 바코드 신원확인
바코드 신원확인으로 신분이 확실한 성도만 입장 가능
외부인, 이단, 고위험군, 자가격리 대상 출입 금지, 교회 출입자 명단 및 예배 참석명단 확보
※ 교인이면 스캔 한 번으로 신원이 확인되도록 조치
- 제 10 단계 전신 소독기 통과

- 대중교통을 이용한 성도들의 감염 위험을 선제거로 차단, 전신의 노출된 모든 면을 소독
전신소독기 통과 필수 → 거부 시 출입 불가
- 제 11 단계 발열 확인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입장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열 여부를 확인
37.5도를 초과 시 바로 귀가 조치 → 동시에 소속기관 확인 → 자가격리보고서 작성 → 대책위원회에 보고
 - 제 12 단계 손 소독
손 소독을 마쳐야만 성전에 출입 가능 → 거부 시 출입 불가
교회 건물 곳곳과 모든 성전 출입구, 엘리베이터에 손 소독제를 항시 비치
 - 제 13 단계 2M 이상 간격 착석
좌석에 착석할 때까지 반드시 앞, 뒤 간격 2m를 유지하며 이동
2m 간격 이동, 2m 간격 착석의 수칙을 따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즉각 퇴실 조치, 코로나 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교회 출입 불허
 - 제 14 단계 성도 좌석확인 QR 시스템
성도들의 정확한 이동 동선, 착석 정보 확인 및 관리를 위해 → #성도 좌석확인 QR 시스템# 을 자체 개발
QR 코드와 성도의 바코드 스티커를 순차적으로 스캔
→ 각 좌석에 QR 코드 부착 - 개인 바코드 확인 → 안내위원이 일괄스캔하여 과실 및 누락 방지
→ 스캔된 위치 정보(성도의 착석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에 저장 → 필요에 따라 웹페이지 기록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
 - 제 15 단계 예배 후 사회적 거리 유지하며 퇴실
각 출입구 근처에 앉은 성도부터 2m 거리 유지하며 천천히 퇴실, 안내위원들은 지시에 맞추어 성도들의 퇴실 동선을 안내하고 관리 → 교회 경내에서 벗어날 때까지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 → 안내를 따르지 않는 성도는 즉각 퇴실 조치 → 코로나 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출입 불허
 - 제 16 단계 성도 퇴실 후 성전 방역
성도들이 퇴실함과 동시에 즉각 방역, 공조시설 철저히 방역 → 살균된 청정 공기 공급
24시간 소독된 환경 유지

IV. 코로나사태 이후 한국교회 전망

1. 한국교회총연합

- 5월 31일 성령강림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함
이를 위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소상공인 및 어려운이웃들과 소통
-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동안 진행된 온라인예배를 현장예배로 전환하는 움직임
- 코로나 19 위기를 계기로 건강한 교회관과 예배관을 회복

2. 한국교회 건강연구원 간담회 개최

- 다시 교회를 세우는 운동(church planting)
- 교회의 교회다움과 공교회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자
- 진실한 교회공동체와 기독교 확장성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필요한 시점
- 비대면 문화속에서 교회는 교회다움과 공동체 예배신앙을 유지
- 비접촉 소통의 일상화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가 더 높아질것을 예상
-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회복과 미래비전에 새로운것으로 창조하게 하실것

3. 재확산되는 추이

- 적지않은 교회들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현장예배를 당분간 보류
(분당 우리들교회, 분당 만나교회)
- 이태원 클럽사태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가 드러난 이면에 영적 메세지



코로나 이후 분야별 전망

1. 사회의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줬다.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인 불안감의 지속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 공황, 불안, 스트레스등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대량 해고와 실업이 발생하며, 병에 걸릴 위험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감염을 막기 위해 직장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해고 또는 실업자가 되었다. 경제의 순항이 계속 되어왔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통계를 내기도 전에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이 전염병은 수 십 년간 소비자를 변화 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 Urrike Malmendier 는 현재의 상황들은 경제학을 초월해서, 이 위기에 대한 경험이 매우 감정적이며, 이 강한 감정은 우리의 기억에 아주 강하게 고정되어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장기적인 흉터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대학 졸업을 앞둔 두 그룹의 젊은이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시작이 될 것이고, 경기 침체기 평균 10년 동안 소득 감소를 겪게 될 것이다. 이들이 중년이 된 시점에는, 결혼 비율이 줄어들고, 자녀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조기 사망률이 높아질 것이며 생활 환경에 영구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전염병이 경제 구조를 바꾸어 노동력의 수입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자동화로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는 대중 매체의 기사들과 소셜 미디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으로 그 결과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며, 이러한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이용한 인종적인 위협이 계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2. 개인 사생활 침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전 세계를 지배함에 따라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기업의 테크놀로지 회사가 입법에 영향을 주며, 이들에 의해 국가 가이드 라인이 형성되어 개인 사생활의 보호보다는 공중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위치 추적을 통해 감염을 경고하거나 감시할 뿐 아니라 사생활 추적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CTV 영상, 전화 및 자동차의 GPS 추적 데이터, 신용카드 거래, 이민 입국 정보 및 감염성 질환의 여부로 기타 개인 정보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 포함된다. 현재 Google 에서는 개인의 감염 테스트 또는 치료를 위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한다. 이는 정부가 전염병이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인종으로 구분하고, 병으로 구분하고, 개인 데이터로 구분하면서 보안의 취약성 위험과, 병원체의 측정과 추적, 예측 및 규제와 함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진 것이다. 사회적인 위협이 인종으로 구분되고, 소셜 미디어가 사회 분열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도 예상할 수 있다.

3. 제약 회사

전염병이 없는 시기에도 생명에 필요한 급성 약물의 85% 이상이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이 집중되었는데, 재래식 전쟁 시와 유사한 군사 조달 및 계획 모델을 중심으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기생충 등, 아직 항체가 없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집중 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총과 탱크 등 무기 개발 및 제조 같이 전염병 감염을 방지하는 개인 보호 용품을 전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시용 국방 생산 등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다.

4. 의료계

TeleHealth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사가 진료하는게 더 활발해지고, 주치의의 경계를 무너뜨릴수도 있다.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협의 아래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의료가 확대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의료법과 의료 보험의 규정이 제정될 것이다. 전염병으로 인해 생명 보조 연장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와 보호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고립되어 있는 노인 환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 증가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감, 가정 폭력의 가능성, 경제적인 어려움 노출, 치매 환자에 대한 제한된 치료등의 염려,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염려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5. New Technology

인공지능, 블록 체인, 챗봇, 얼굴 인식, 소독 로봇, Telehealth, 드론 및 소프트 웨어 솔루션 같은 최신 기술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에 기여하게 되었다.

6. 새로운 에너지

전염병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석유중심의 전력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의 비율을 증가시키며 녹색 에너지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과 더 큰 공급을 수용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더이상 노동력을 통한 에너지보다 재생 가능 에너지가 세계 경제의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건설업과 제조업을 좀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현재 느려진 제조업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청정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자원 개발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7. 항공, 숙박업계

아주 길고, 더딘 경기 회복으로 국제 항공업계 회사의 감소가 예상된다. 코로나 백신과 항생제가 나오기까지는 회복이 힘들며, 또한 많은 비즈니스 여행이 Zoom 이나 새로운 테크놀리지로 대체되어 가면서, 항공 여행이 줄어들 위기에 있다. 2019년에 미국에서 9억 2500 만명의 여행자가 항공기를 이용했으나, 언제 다시 회복 할수 있을지 모른다. G7의 세계 지도자들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대체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며, 좌석, 정비, 체크인 등 모든 과정에 새로운 규칙과 가이드 라인이 적용되고, 더 많은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유럽 연합을 포함해서 미국으로의 모든 여행을 금지하였고 또 사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숙박 시설 하위 부문의 대부분의 수요가 감소하고, 국내 여행도 크게 감소하며 이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업계와, 숙박, 여행업계에도 어려운 시간이 될것이라고 예상된다. 국제 여행은 여권뿐 아니라 새로운 바이러스의 백신 확인서가 항공여행이나, 숙박 시 필요할수 도 있다.

8. 핀테크 Fintech

이번 코로나로 은행이 소비자 데이터를 “전자적 형태”로 이용 할수 있도록 규정하며 FINTECH 산업이 활성화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소비자와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투자, 신용, 개인대 개인 지불등을 쉽게 접근 할수 있게 하고, 세계 경제가 중단되면서, 수천 개의 은행이 닫은 상황에서 필요한 플랫폼이 되었고 소비자들은 이런 금융 앱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디지털화가 실제로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9. 소매업

배달 대기 시간이 길어졌지만 가정 필수품에 대한 많은 거래가 온라인 주문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매장에서는 한번에 허용되는 쇼핑객 수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에 온라인 쇼핑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되며, 오히려 판매가 올라감으로 소매업체는 훨씬 더 빠른 회복을 예상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을 따라서

종류를 제한하고 수요가 꾸준한 제품에 집중하게 되어 생산과 유통을 가속화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고 추적을 통한 기술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10. 온라인 식료품 쇼핑의 자동화

회사 인력 없이도 일주일에 수만 건의 온라인 식료품 주문을 처리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전염병이 소비자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위기가 끝나도 더 많은 고객들이 온라인 식료품 쇼핑으로 전환 할수 있다고 예상한다. 자동화된 주방으로 식사 배달과, 농산물 재배와, 자동화된 주차장까지 확장 예상되며, 모바일 식품 서비스 산업의 수요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본다.

11. 농업, 제조

제조업 부분에서 자동차, 세탁기, 가구와 같은 내구성 제품의 제조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고, 화장지, 식품등 가정용 제품과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제조와 도매업이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가 아주 크고, 가금류 도매업체와 고기 도매 업체의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의 농부들이 잠재적인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서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2. 법조계

IBM Corp, Microsoft Corp, Amazon.com Inc, Facebook Inc 등 전염병 예방이나 치료에 참여한 회사들이나 대학, 연구 기관 등이 협력해서 개발한 치료제나 기술의 로열티, 패턴을 무료로 사용함으로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합법적으로 허가한다. ZOOM 으로 법원에서의 재판과 Youtube 로 재판 과정을 볼 수 있게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염병 이후에도 밀려 있는 재판 등에 사용 될 것으로 본다.

13. 스포츠, 영화, 및 대중 문화

현재 겪고 있는 대부분의 new normal(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이 코비드 사태가 끝난 뒤에도 적어도 new normal 로 자리잡는데 몇 달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며, 대중이 함께 즐기는 행사 대신 제한적인 인원 수용과 새로운 결정들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분야와 조직에 맞는 자세하고 분명한 매뉴얼이 준비 되는 동안 박물관이나 전시회나 공연 등은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이다.

14. 교육계

코로나로 인해 전통적인 교육방법 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현재 학교 교육을 받는 Z 세대에게는 더이상 온라인 교육이 새로운 환경이 아니다. 이들은 이미 아이폰, WIFI, 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익숙하고 소셜 미디어와 함께 성장했기에 현재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 많은 대학 강의실 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더이상 부모를 떠난 낯선 환경으로 갈 이유가 없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술의 발달로 백신이 나올때까지는 더 많은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질 예상이며 이는 국제 유학생들에게는 자기 나라를 떠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할수 있어서 비자 문제로 기다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현지 유학생들의 숫자가 대폭 감소될 것이다.

15. 재택 근무

이번 전염병으로 가장 큰 변화는 비효율적이며 부정적이던 재택 근무에 대한 견해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출퇴근의 시간을 절약할수 있고 점점 재택근무에 적응해 가고 있다. 그리고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검토가 되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사무실 없이 재택근무로 모든 회의와 업무가 온라인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가정 중심 신앙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지난 1월부터 우리 사회를 덮친 코로나 19 사태는 조금씩 잦아드는 듯하다. 그러나 언제 감염병이 재유행할지 모르는 상태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올가을과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 19 라는 새로운 상황에 조심하고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코로나 19 는 우리 사회와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의 기본 지침이 되면서 여러 모임이 중단되었고, 꼭 필요한 학습이나 모임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사람들이 이동을 자제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관광 산업과 항공 산업은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교회 모임이 중단되고 심지어 예배마저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다. 그동안 당연시하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재유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많이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우리가 코로나 19 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코로나 19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인류의 육식 중심의 식생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축산 산업, 기후 변화, 야생 동물 서식지 침해, 지구촌 시대의 교역과 이동 등의 조건이 지속되는 한, 또 다른 전염병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염병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 체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생활 체계는 한편으로 전염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주어진 생활 가운데 좋은 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로 인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작지만 희망의 빛도 보인다. 우선 코로나 19 로 인해 많은 분쟁 지역들이 휴전을 선포해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공장이 멈추고 교통량이 감소하며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회복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 모임과 회식이 사라지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심지어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모든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19 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엄청난 경제적 타격과 생활의 불편을 가져다 준 코로나 19 가 그 이면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인류가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던 이 상황을 지금 잠시 멈추라는 것이다. 인류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은 결국 깨끗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가족들과 사랑을 누리며 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경제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제라도 본래의 목표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19 를 완전히 극복하더라도, 단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가 비춰준 희망의 빛을 따라 우리 삶의 체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가 비춰준 희망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가정의 회복’일 것이다. 물론 현 상황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많다. 이와는 반대로 생계 문제나 다른 여건이 허락지 않아 부모가 여전히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어 아이들만 가정에 방치되는 돌봄의 공백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그런 삶이 주는 기쁨을 누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회 제도적으로 회식이나 야근 문화를 개선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퇴근 후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어야 한다. 온라인 근무가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재택근무를 늘리고 유연 근무도 확대해야 한다. 직장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온 가족이 요리 및 가사 일을 분담하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온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을 과도하게 학원으로 내몰지 않도록 입시 경쟁을 완화해 가야 한다. 이러한 일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경제 회복을 위해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더라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기회에 가정의 회복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교회 또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당으로 모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당황해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다시 이전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인들을 교회당으로 모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랑의 가정 문화를 만들도록 돕고 격려해야 한다. 가족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이웃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는 코로나 19로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 기회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살아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목회자는 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전화나 화상회의를 하며 가정 기도회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는 개별 교회 차원, 혹은 연합 차원에서 가정 기도회나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보급하고, 실제로 진행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교회의 많은 사역의 부담에서 벗어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힘쓰면서, 그런 일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교우 가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가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또 이후에 어떤 전염병이 찾아올지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방역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을 최대한 돕는 일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의 고통 이면에서 비치는 회복의 작은 빛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방향을 따라 우리 사회와 교회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정의 회복’은 지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장 주목하고 힘써야 할 부분일 것이다.

❖ 이 글은 (사)기윤실 정병오 대표가 <좋은나무>에 기고한 글을 참조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코로나 19로 사태는 우리의 생활과 사회를 여러모로 바꿔 놓고 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배 형태와 사역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의 제약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회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민낯을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인소싱이 필요하다.

지금껏 우리는 아웃소싱(바깥쪽에서 자원을 얻는 방식)을 통해 신앙생활을 유지했다.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 교육은 학교와 학원에 맡기고, 가정의 오락과 휴식은 대부분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 맡겼다. 그리고 가정은 단지 이러한 바깥쪽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변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그 결과 예배와 교회, 학교가 단절되었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평소에 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 안에 소그룹 운동이 있었지만,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참석 인원으로 교회의 규모를 규정해 왔기에, 작은 그룹의 역할과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작게 보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앞 장(가정중심 신앙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언급한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소싱(조직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이 필요하다. 부모의 역할이 때로는 목회자, 때로는 교사, 때로는 상담자로서 단순히 하숙집 주인 같은 역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교회 역시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시켜야 하고, 그들이 소그룹원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돌보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2. 소그룹훈련이 필수적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 사도의 선교팀도 모두 소그룹이었다. 그 소그룹을 통해 복음이 전파 되었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변혁시킨 주역들이었다. 이제 교회는 다시 핵심을 굳건히 하는 중대 기로에 놓였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는 소그룹이 존재할 때, 위기의 상황에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소그룹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소그룹을 통해 진정한 한 몸, 즉 '각 지체가 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유대관계와 사랑으로 연결되고 붙어 있는 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개인의 영성을 강화해야 한다.

홀로 있어 타오르던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혼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에는 조금 신앙이 떨어졌어도 모이면 다시 회복되고 중심을 잡곤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외적 자극과 도전이 전무할 때도 과연 개인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해 왔느냐를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다.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제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기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느낀 점 및 제안

❖ 이 글은 기획위원들이 자유롭게 개진한 의견과 제안을 취합한 것입니다.

➤ 예배

-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 공동체(가정 & 교회) 회복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었다.
- 요셉이나 다니엘도 성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다. 바벨론 포로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드릴 수 없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찬양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예전과 격식을 다 갖추는 것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신앙생활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임을 깨닫게 되었다.
- 예배를 떠나 있던 교우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된 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난 교우들이 없는지 잘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가정예배 영상 제작 (이중언어)을 통해 가정예배가 익숙치 않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 주일 대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이나 통역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고등부에서 보내는 문서 파일로는 예배 집중에 적합하지 않고 설교 뿐 아니라 기도 등 다른 순서도 통역이 되어야 한다.) - 동시 통역 자막 서비스
-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예배드리는 이들을 배려하여 온라인뿐만 아니라 공동의 기도문이나 예배문을 마련해 개별적 예배와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는 예배가 일상화 될 것이며, 따라서 교회는 예배, 교육, 전도, 상담 등을 위한 질 좋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는 가정 중심의 예배 및 교육으로 재편된 가능성이 크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질 부모들의 교육과 훈련이 절실하다.

➤ 선교

- 공중보건의 세계 국가력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좋은 사례를 보여준 한국인들이 앞으로 의료 선교나 이슬람권 선교까지 희망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온라인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IT 선교가 주목 받고 있다. 디지털 성경, 온라인 제자 양육 프로그램, 언어번역기 등 다양한 플랫폼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T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같은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선교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사역

- 인터넷, 온라인사역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 낼수 있다. 언택트 사역 개발과 함께 꼭 지켜야 할 본질만 붙들고 나머지는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 비대면 사회에서 파생되는 외로움, 우울증, 관계의 욕구 등을 교회가 잘 채워줄 필요가 있다.
- 이후 비상 사태를 대비, 전교인이 온라인 체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 메세지 홍수(중복 메세지)로 피로감이 생기고, 오히려 카톡을 확인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 하나의 채널을 사용하여 전 교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 미디어 사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 교회 구입 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상이나 음악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라이브스트리밍에 음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교회 웹사이트에서 바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Zoom 이나 Live-chat 을 통해 설교자들이나 성도들 간 자유롭게 받은 은혜를 나누거나 간단한 topic 을 가지고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zoom 이나 youtube live 를 통해 원거리 강사 특강을 듣거나 특별집회도 가능하다.
 - 교회 모바일 앱을 통해 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교회학교
- 아이들은 대부분 관계에서 신앙을 쌓는데 그 부분에 있어 온라인 교육의 한계가 있다. 한계 극복을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 시킬수 있는 자료와 방법 등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 중고등부도 그들에 맞는 예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 QPEM 예배 참석)
 - 교사훈련 - zoom 이나 google meet classroom 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교회 재개방 후에도 교사와 학생간 zoom 을 통해 소통 가능 (QT sharing, prayers, bible reading...)
- 기타
-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 대하여는 why?(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찰하고 회개)라고 묻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는 How? (어떻게 돕고 구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라고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간이 멈추니 생태계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단순한 삶, 생명을 우선시하고 연대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캠페인 -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노년층을 위한 봉사 - meals on wheels..
 - 요셉도서관을 통해 e-book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
- 출구전략

Category	Item	Descriptions	Remarks
Safety Measures	방역작업	교회 건물의 사전 소독 작업 (prior to reopening)	
	PPE	Mask 상시 착용 철저한 개인 위생의 생활화 및 관련 교육	
	Sanitizers	Hand Sanitizer 등의 위생용품 상시 구비	
	방문자 검사 process	Disinfectant mats for all entrances 체온 측정기 for all entrances	
예배 순서 관련	50인 이내 제한시	가족별 참석/착석 - 사전 예약으로 가족 단위 참가자 선정 선교회별 참석 - 선교회별로 제한 인원 참석 찬양대 순서는 당분간 불가하며, 독창 혹은 가족/선교회 특송으로 대체 성경/찬송 공동 사용 불가 헌금순서 - 예배실 입구에 헌금 수납통 설치 성찬 순서 - TBD	각 좌석별로 'social distancing' 관련 표기
	10인 이내 제한시	현재와 같은 format 으로 진행	
사역활동	QBC/제자훈련/전복	online until further progress	
	그 외 한글학교 및 각종 훈련		
봉사활동	식당운영 및 식사 관련	예배 참가자에게 giveaway 식사 제공 (간편식)	
	교회버스 운송	Hold until further progress	
교육위원회	주일 예배 및 각종 프로그램	Hold until further progress	
성도들을 위한 Reopening 기념 Campaign (3F)	서로를 더욱 품으며	Friendship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Faith	
	하나 되기	Family	